

나는 누구인가

1화의 주제 소개

1화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써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12-14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바깥 어두운 소굴인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오직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1화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거룩한 목적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야기 소개

툼니바퀴 성에 살고 있는 씨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소망과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 누군가가 구해주어 왕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자녀로 입양되어, 왕의 성에 살게 됩니다. 왕의 자녀가 된 씨니는 친구 쭈니를 만나게 되고, 말씀 선생님인 글로리아를 만나 신앙의 배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씨니가 왕의 거룩한 목적과 은혜에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또 바울을 통해 창조의 뜻과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워크북 해설

워크북

1.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나요? (골로새서 1:12-14)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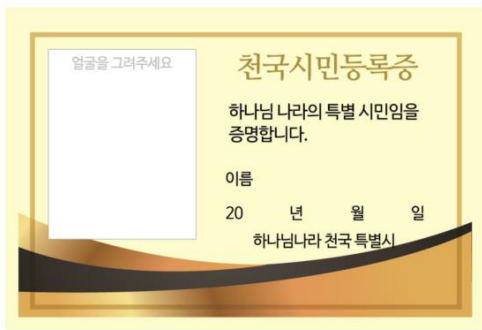
씨니는 톱니바퀴 세상에서 그리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씨니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코 보스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로 나와요. 톱니바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골로새서 1:12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1:13)

2. 씨니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함께 만들어봐요!



신분증에는 이름과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어 줍니다. 여권에도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고, 이름과 생일을 써보도록 합니다. 모든 만들기를 마친 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하며 박수로 마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워크북 해설

워크북

3.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어떤 순서로 지어졌나요?



해설

창조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나누시고, 채우신 사건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물을 나누어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에 있는 궁창을 나누셨고, 위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 물을 한곳으로 모아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채소와 곡식,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 비로소 하늘과 바다에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살아갈 생물들, 즉 동물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4.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 버킷리스트를 함께 만들어볼까요?



에베소서 2:10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한 일,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도 함께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목록표)를 만들어봐요!

워크북 해설

워크북

5. 세니는 왕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했나요?

열심히 일했어요



해설

씨니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적이고, 대가를 치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서운 아버지처럼 주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6.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말풍선을 채워주세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보내 주셨어요.

7.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아래 보기에서 체크해보세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중한 자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쁜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별한 창조물	<input type="checkbox"/> 죄인
<input type="checkbox"/> 말썽꾸러기	<input type="checkbox"/> 빗쟁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셨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화의 제목인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나는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